

푸틴의 반(反)서방주의와 러-미 관계 조망

이홍섭 (국방대학교 교수)

최근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가 심상치 않다. 서로에 대한 외교적 배려나 관계복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려는 것 같지도 않다. 임기 내내 러시아 정부와 불편한 관계였던 주러 미국 대사 맥폴은 임기를 1년 겨우 넘긴 상태에서 사임하였고 후임으로 임명된 존 테프트 대사에 대한 러시아의 시각도 곱지 않다. 양국 간의 갈등은 무엇보다 임기 초 몇 년에 걸친 푸틴의 대서방 화해시도와 그의 대리인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의 유화적 자세마저도 좌절된 점과 관련이 깊다. 또한 서방이 러시아 국내정치에 깊숙이 개입하는 태도에도 크게 반감을 갖게 되었다. 동시에 푸틴은 자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방이 지속적으로 나토를 확대하는 데 대하여 강하게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서방의 경제 제재 조치가 확대되고 지난해 10월 이후 급작스런 유가 하락이 현실화되자 러시아는 일련의 사태들이 자신들을 궁지로 몰려는 서구의 음모로 생각하면서 러-미 관계는 더욱 냉각되고 있다. 이에 대한 푸틴의 대처가 궁극적으로 반서방주의적 성격을 갖게 되었는데 이는 중국과의 관계 심화, 유라시아경제연합의 출범, 러시아 가치를 강조하는 민족주의적 성격으로 나타나 우려를 낳고 있다.

* JPI정책포럼 세미나(2015.02.05) 발표자료

목 차

1. 최근 주요 국제문제에 대한 러-미 갈등
2. 양국 갈등의 배경
3. 러-미 갈등 심화 요인으로서의 국제유가 폭락
4. 러-미 갈등에 대한 푸틴의 대응: “반(反)서방주의, 완전한 주권”
5. 양국관계 전망과 정책 제언

1. 최근 주요 국제문제에 대한 러-미 갈등

- 최근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는 심각한 대결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평가됨. 이러한 대결 양상은 양국 간 ‘원칙’의 문제로 대두되었는데 러시아는 국내외에서 자신들의 완전한 주권(full sovereignty)을 방어한다는 맥락에서, 미국은 냉전 종식 이후 자국 중심으로 이끌어져 왔던 현재의 국제질서를 유지한다는 맥락에서 충돌함¹⁾
- 현재 양국 관계는 서로에 대한 배려나 상호존중이 결여된 상황

가. 시리아 사태

- 아프리카 북부지역에서의 재스민 혁명기간(2010~2011) 중인 2011년 3월의 시위로 촉발되었는데, 서방 측은 시리아 정부의 시위대에 대한 무력 강경진압을 규탄하며 아사드 정부의 퇴진을 요구하였고 러시아 측은 반대 입장을 표명
- 러시아는 오바마 정부의 시리아 반군 무기 지원안 승인에 대하여 강력 반발²⁾
- 미국은 2013년 여름, 화학무기에 의한 시리아 민간인 대량학살의 주범으로 시리아 정부를 지목하고 시리아에 대한 공습선언
- 미국의 공습이 임박한 가운데 시리아는 러시아가 제시한 화학무기 포기 제안을 수용함
- 시리아 사태를 둘러싸고 러시아와 미국은 사태 해결방식에 있어서 각각 자결 및 개입이라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국제질서의 유지 방식에 대하여 이견을 노출

나.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Snowden) 사건

- 러시아, 미국 정부의 통화감찰 기록과 감시프로그램을 폭로한 전 CIA 직원 스노든의 임시망명 허용(2013.8)
- 미국의 범인 인도 요청에 대한 러시아의 거부는 오바마-푸틴 양국 지도자 개인 수준의 적대감으로 진화
- 이는 양국 간 정상회담 및 방문 취소로 이어짐

- G20 정상회의(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미리 정상회담 취소(2013.8)
- 오바마 미 대통령, 소치 동계올림픽 개최식 불참(2014.2)

○ 2014년 8월, 러시아는 스노든의 체류기간을 3년 연장해 줌

다. 우크라이나 사태

- 러시아로서는 우크라이나가 자신의 세력권에서 벗어나는 것이 나토의 동진확장을 허용하는 것이며, 흑해지역에 대한 지배권 축소, 에너지자원 패권경쟁에서 국익의 침해로 인식³⁾
- 러시아는 자신들이 제안한 ‘우크라이나 정치·군사 중립화’ 방안을 우크라이나 정부가 거절한 것은 향후 우크라이나가 NATO 회원국이 되려는 의도로 해석하고 강한 거부감 표명
-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러시아와 서방 사이의 “범세계적 경쟁의 심화”, “가치관 및 발전모델의 경쟁”이라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인식

라. 국제유가 폭락

- 2014년 6월 이후 국제유가 50% 하락
- 러시아는 서방에 적대적 국가인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에게 경제적 타격을 가하기 위한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음모로 해석
- 정부예산의 반 이상을 에너지자원 수출과 관련된 수입에 의존하는 러시아로서는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음

최근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는 심각한 대결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평가됨. 현재 양국 관계는 서로에 대한 배려나 상호존중이 결여된 상황

2. 양국 갈등의 배경

가. 푸틴의 대서방 화해시도 좌절과 소외감

- 9.11 전후, 크렘린은 나토 가입 및 EU로의 통합을 포함해 미국과의 연합 내지 동맹을 고려할 정도로 서방과의 협력을 모색했지만 이러한 시도는 실패했다고 판단⁴⁾
 - 러시아는 2001년 미국이 아프간에서 알카에다 및 탈레반 제거작전을 수행하는데도 지원
 - 러시아는 미국의 ABM 조약탈퇴(2001) 및 이라크 침공(2003), 나토의

푸틴은 서방세계에 자유주의자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메드베데프를 통해 미국 및 서방과 무엇을 함께 추진할 수 있을지 검토. 푸틴은 상기의 대서방 유화정책이 일부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대부분 중요한 사안에서는 실패했다고 평가

발틱국가로의 확대, 미군의 중앙아시아 및 조지아 주둔에 대하여 불편한 심기 노출

- 푸틴에게 정치적으로 도전한 호도르콥스키 회장이 러시아 최대 석유 회사 Yukos를 미국 기업에게 매각을 시도한 데 대한 대처로 ‘국가자본주의(state capitalism)’를 강화함
- 푸틴, 나토 회원국 확대에 거듭 경고
 - 2007년 2월 뮌헨 안보컨퍼런스에서 푸틴은 미국이 주도하는 탈냉전 국제질서를 비난하고⁹⁾ 미국과 나토가 우크라이나 및 조지아를 나토 회원국으로 가입시키려는 행위에 대하여 비난
 - 푸틴은 2008년 4월에는 루마니아의 부카레스트에서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회원국으로 가입시킬 경우 국가 분열과 국내 소요가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 그러나 서방국가들은 이를 러시아의 신제국주의적 야망의 징후로 간주
 - 독일과 프랑스의 중재로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의 나토가입은 일단 중단되었으나 양국은 언젠가 나토에 가입될 것으로 약속을 받음

나. 대리자 메드베데프(2008~2012)의 유화적 외교정책이 가져온 결과에 대한 부정적 평가

- 푸틴은 서방세계에 자유주의자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메드베데프를 통해 미국 및 서방과 무엇을 함께 추진할 수 있을지 검토
 - 오바마의 리셋(reset) 정책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 미국과는 전략무기감축 협상, NATO와는 공동 미사일방어체제를 논의함
 - 리비아 사태와 관련하여 서방이 반군 거점도시인 뱅가지 상공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상정하자 최초 러시아는 반대했으나 이후 투표에 기권함으로써 사실상 서방의 요구를 수용(2011.8)
 - 주요 서방경제와의 현대화 공조 등을 추진함
- 푸틴은 상기의 대서방 유화정책이 일부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대부분 중요한 사안에서는 실패했다고 평가
 - 긍정적인 면: 2010년 신전략무기감축(New START) 체결, 2012년 WTO 가입
 - 부정적인 면: 공동 미사일방어체제 합의 실패, 유럽 MD배치 추진, NATO의 확대, 서방이 요청한 리비아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동의를 카다피를 제거하는 데 이용됨
- 푸틴은 ‘편을 나누지 않는’ 다는 원칙 아래 유럽안보조약을 제안(2008

년 6월)했지만 서방이 목살했다고 인식

- 오히려 2개월 후인 8월, 친미주의자 샤카쉬빌리 대통령이 이끄는 조지아가 남오세티아 반군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여 러시아 평화유지군 수명이 사망하였는데 이것이 미국의 사주(딕 체니 부통령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러시아는 인식
 - 러시아가 NATO와의 공동 미사일방어체제-실질적 군사동맹 성격-구축을 제안하였지만 서방이 냉담한 반응을 보이자 푸틴은 서방이 탈냉전 이후에도 러시아를 잠재적 적으로 보고 있다고 결론을 내림
 - 리비아에서 러시아가 대폭 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서방의 독단적 무력사용으로 이어졌다는 점에 대하여 러시아는 깊은 배신감과 자괴감을 느낌. 이것이 시리아 사태에 대한 서방의 무력사용에 러시아가 완강하게 거부한 배경임
- 자유주의자로 서방에 알려져 있는 메드베데프를 대통령으로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태도가 냉담하자 푸틴은 크렘린 지도자의 성향과는 관계없이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기본 시각이 부정적이라고 인지

다. 러시아 국내정세에 대한 외부 개입에 반감

-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외국 지도자들이 공공연하게 메드베데프를 러시아의 차기 대통령 후보로 지지 표명
 - 서방의 지도자들은 메드베데프를 푸틴보다 더 세련된 지도자로 평가
 - 2011년 여름, 메르켈 총리는 독일을 방문한 메드베데프를 러시아의 차기 대통령 후보라고 언급함
 - 2011년 9월,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 후보는 푸틴이라고 발표하자 서방 언론은 실망감을 감추지 않음
 - 이와 같은 사례를 두고 푸틴은 외국인들이 감히 러시아 지도자를 선발하는 무례를 범하고 있다고 인식
- 푸틴 3.0 출범(2012.5) 전후 대미 강경입장
 - 러시아는 2011년 12월 총선 전후에 벌어진 시위의 배경으로 미국을 지목
 - 미국이 스탠포드대학 교수 출신으로 러시아의 민주화 지연을 지적한 바 있는 마이클 맥폴 교수를 주러 대사(2011.12~2013.2)로 임명한 것에 대하여 노골적으로 불쾌감 표명
 - 맥폴 대사가 부임 직후 반정부 시민단체 간부들과 만난 데 대하여 크렘린은 미국의 의도를 의심하고 이를 색깔혁명의 연장선상에서 해석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외국 지도자들이
공공연하게
메드베데프를
러시아의 차기 대통령
후보로 지지 표명.
이와 같은 사례를 두고
푸틴은 외국인들이
감히 러시아 지도자를
선발하는 무례를
범하고 있다고 인식*

푸틴은 스스로를

유럽의 전통적 가치의

파수꾼으로

자리매김하고

러시아적 가치관을

강조

-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방에 대한 러시아의 불신이 깊어짐
 - 서방의 경제 제재로 루블화 가치 폭락 및 외국인 투자 축소로 경제위기 봉착
 - 푸틴은 서방이 러시아 국민들의 불만을 야기시키기 위해 사회, 경제적 상황 악화를 바라고 있다고 주장⁶⁾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중립화’ 제안을 우크라이나가 거절하자 러시아는 이를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 되려는 의도로 판단
 - 러시아는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서방 對 러시아 대결의 최전선’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주장

라. 푸틴, 자신을 러시아 가치의 파수꾼으로 인식

- 총리 재임기간(2008~2012) 동안 푸틴은 일종의 ‘러시아敎’ 전도사로 변신
 - 자신의 공적 연설에 신(神)을 언급하고, 신에 의해 주어진 과업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임
 - 러시아의 독특한 정체성을 강조하면서⁷⁾ 정신적 주권의 필요성 강조
 - 러시아의 독립과 주권을 최고 국가가치로 격상시킴
- 푸틴은 스스로를 유럽 전통적 가치의 파수꾼으로 자리매김하고 러시아적 가치관을 강조⁸⁾
 - 푸틴은 2012년 대선 선거공약으로 ‘러시아의 가치’ 강조⁹⁾
 - 푸틴은 서유럽 국가들이 잘못된 가치관을 다른 세계에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예컨대 2012년 러시아의 밴드그룹 ‘푸시 라이엇’이 모스크바의 신성한 구세주 그리스도성당에서 반(反)푸틴 기습공연을 벌인 데 대하여 유럽 국가들이 지지한 것은 우르스럽다고 표명
 - 유럽 국가들이 소치올림픽 때 동성애자를 지지한 것도 잘못된 것이라며 극우보수정당(프랑스의 National Front, 영국의 Independence Party, 헝가리의 Jobbik 등)과의 국제 협력을 도모

마. 국제유가 폭락과 러시아 경제 위기

- 국제유가 폭락의 배경으로 미국의 음모론을 제기
-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서방의 경제 제재로 경제위기 봉착

바. 국민지지를 위한 푸틴 정권의 연출

- 2011년 9월, 푸틴의 세 번째 대선 출마 선언 이후 나타난 러시아 국민

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러시아 정부는 미국 및 유럽의 위협을 애국주의 조장의 매개로 이용

- 국내 소요 사태의 배후를 미국 및 서방으로 지목

3. 러-미 갈등 심화 요인으로서의 국제유가 폭락

가. 국제유가 폭락의 원인에 대한 두 가지 견해

- 경제적 이유
 - 세계경기침체에 따른 수요 정체로 하루 평균 170만 배럴(1.8%) 초과 공급¹⁰⁾
 - 미국의 셰일가스 개발에 따른 유가 하락 속에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에너지산업 주도권 싸움
 - 각국의 한계생산비용(marginal cost)
미국(\$50~75), 러시아(\$15~25), 사우디아라비아(\$10~17)¹¹⁾
 - 국가재정 균형을 위한 유가(2014년 기준)
이란(\$130.5), 베네수엘라(\$161), 러시아(\$105), 사우디아라비아(\$97.5), UAE(\$79.3), 카타르와 쿠웨이트(\$50달러대)
- 전략적 이유
 - 소위 음모론으로서 저유가 사태의 배경에는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부추겨 2014년 10월, 석유수출기구(OPEC)가 원유감산을 하지 않기로 결정함으로써 유가 폭락을 유발하여 일부 국가들, 즉 이란,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 미국과 불편하거나 협상이 진행 중인 국가들을 궁지로 몰아넣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
 - 푸틴, “최근 유가 하락은 정치적 요인이 배경이다.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두 나라가 공모했을 수 있다”고 비난
 - 이란과 베네수엘라도 유가 하락이 국제사회에서 미국 및 그 우방국들과 계속 충돌하는 자국에 대한 미국의 계산된 음모라고 주장

푸틴, “최근 유가 하락은 정치적 요인이 배경이다.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두 나라가 공모했을 수 있다.”고 비난

나. 저유가의 배경

- 미국은 수입 파쇄법이라는 채굴 기법 상용화에 성공해 셰일층에 섞여 있는 막대한 가스 및 원유를 생산하여 2008년 하루에 500만 배럴이던 원유생산량을 2014년 말 910만 배럴로 늘림
- 미국 셰일오일의 생산단가는 평균 \$60,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생산단

**푸틴은 자유주의적
반대파들이 외국,
특히 미국의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인식**

가는 평균 \$20~30. 사우디아라비아는 유가가 \$40 이하로 떨어져도 생산량을 줄일 뜻이 없음을 밝힘

- 일일 원유생산량(2014년): 러시아(1,060만 배럴), 사우디아라비아(950만 배럴), 미국(910만 배럴)

다. 유가 폭락이 국제사회 및 러시아에 미친 영향

- 일부 에너지기업, 신규 유전개발 예산삭감 및 경비절감 돌입
 - 미국 3위 원유업체인 코노코 필립스(ConocoPhillips), 설비투자 20% 삭감
 - 200여 개 미국 중소형 원유업체, 파산위험 당면
 - 일부 미국 셰일가스 개발업체 도산
 - 캐나다 오일샌드 생산업체 적자 발생함에 따라 감축 돌입
 - 경기침체로 일부 국가 경제위기 봉착
- 러시아, 경제위기 봉착
 - 루블화 가치 급락, 외국인 투자 감소와 자본 유출 가속화
 - S&P, 러시아를 ‘투자부적격’ 국가로 강등(2015.1)

4. 러-미 갈등에 대한 푸틴의 대응: “반(反)서방주의, 완전한 주권”

가. 국내 반대파 활동에 대한 규제 강화

- 푸틴은 자유주의적 반대파들이 외국, 특히 미국의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인식
 - 외국의 후원을 받는 NGO는 외국대리기구(foreign agent)로 등록하도록 하는 NGO법 제정(2012년)
 - 외국인과의 접촉시 신고 의무화
- 러시아, 미국 정부의 러시아 주재 대사 인선에 대하여 불쾌감 표명
 - 맥폴 대사는 러시아 자유주의자들에 대하여 우호적(2014년 2월 사퇴)
 - 신임 미 대사 존 테프트(John Tefft, 2014년 8월~현재)에 대해서는 그가 조지아와 우크라이나 혁명의 조종자였다고 비난

나. 미국 주도의 단극 국제질서 거부

- 러-미 양국 간 갈등 노골화
 - 미국은 러시아의 인권유린을 지적하는 Magnitsky법 제정(2012.11)

- 러시아는 러시아를 방문한 러시아 출신 고아들의 출국을 금지하는 Dina Yakovlev법 제정(2012.12)
 - 미국, 입국금지 대상 러시아 인사 18명 명단 발표(2013.4)
 - 러시아, 스노든의 한시적 망명허용(2013.8)
 - 미-러 정상회담 취소(2013.8)
 - 러시아, 스노든에 대한 러시아 추가거주 3년 허용(2014.8)
- 미국 및 나토를 주요 위협으로 간주
- 국내문제에 대한 외부간섭의 위험이 커졌다고 인식
 - 2014년 군사독트린에서는 나토를 지역 불안정 요인으로 더욱 부각 시킴¹²⁾

다. 중국과의 에너지협력 확대

- Gazprom(러시아)-CNPC(중국) 가스공급계약 체결(2014.5)¹³⁾
 - 4천억 달러 규모로서 2019년부터 연간 386bcm을¹⁴⁾ 30년간 공급
 - 러시아 및 유럽의 긴장관계 속에서 체결되었는데, 러시아의 LNG 수출 가격(단위: MMBtu)은 對중국(\$10.10), 對한국(\$10.50), 對일본(\$10.50), 對스페인(\$9.15), 對영국(\$6.60)인 데 비해 미국의 평균수출가는 \$12를 상회하여 미국의 LNG 수출전망을 어렵게 함
- Novatek(러시아)-CNPC(중국), LNG 300만 톤 체결
- Rosneft(러시아), 중국에 \$6백~7백억 규모의 석유공급
- 에너지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금지하는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중국에게 러시아 에너지산업에 대한 주식투자 허용
 - Rosneft의 동시베리아 프로젝트에 CNPC 49% 투자
 - Novatek의 Yamal LNG 프로젝트에 CNPC 20% 투자

*에너지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금지하는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중국에게
러시아 에너지산업에
대한 주식투자 허용*

라. 터키라인(Turkish Stream) 건설

- 푸틴 대통령은 2014년 12월, 터키를 방문하여 남부라인(South Stream)을¹⁵⁾ 포기하고 연간 636bcm 규모의 터키라인을 건설할 것이라고 발표
- EU는 이 계획에 대하여 회의적

서방에 의해
독단적으로 강요된
규범과 정책 거부.
러시아 가치의 강조.
민족주의 강조

마. 유라시아경제연합(EEU: Eurasian Economic Union) 출범

- 3개국(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으로 구성하여 2015년 1월 1일 출범하였으며 1월 2일 아르메니아가 회원국이 됨
- EU 및 NATO의 동유럽 확장에 대한 대응
- 각 회원국의 주권과 국익의 보전, 평등과 실용주의, 그리고 상호신뢰의 원칙에 입각하여 설립

바. 극동개발 가속화

- 유럽의 영향으로부터 러시아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그리고 미국 및 EU측에 대한 균형유지의 측면에서, 또한 부상하는 중국 및 동아시아 지역을 통해 러시아 경제발전을 촉진하고자 추진
- 유럽시장의 불안정성을 대체할 시장으로 아시아 지역에 대한 가스공급 확대
 - 현재 6%에서 2035년까지 31%로 확대 계획¹⁶⁾
 - 파이프라인을 통한 중국으로의 가스공급, 4~6년 후 실행
- 2012년, 아시아 중시 정책을 표방하면서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 개발을 도모하고자 극동개발부 신설(2012.5)

사. 서방에 의해 독단적으로 강요된 규범과 정책 거부

- 러시아 가치의 강조
 - 키릴 대주교가 이끄는 러시아정교는 크렘린과 함께 러시아 세계의 건설 사업에 협력. 여기서 일컫는 러시아 세계는 러시아정교권을 지칭하는 것으로 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몰도바를 의미함
- 민족주의 강조
 - 모스크바 남부 Biryulevo에서 벌어진 폭동(2013.10): 타국으로부터의 이주민 거주 불용
 - 소치올림픽(2014.2): 개·폐막식에서 러시아 역사와 문화성취를 찬양하는 강한 민족주의 드러냄¹⁷⁾

5. 양국관계 전망과 정책 제언

가. 현재의 갈등관계를 벗어날 돌파구가 보이지 않음

- 현재의 갈등은 미국과 러시아가 생각하는 “세계질서의 비전” 간의 충돌
- Euro-Atlantic Security System에 동참하지 못한 푸틴의 좌절감 반영
- 오바마로서는 러시아의 크림합병으로 자신이 제시한 미-러 간 협력을 기치로 하는 리셋 시도는 종료되었다고 인식¹⁸⁾
- 상호 대화채널 단절상태, 상호인식 및 가치관 차이 노출. 미-러 고위층 누구도 관계복원에 관심이 없음
- 미국 및 EU와의 관계 악화는 비서방 국가, 특히 중국·인도 등 BRICs 국가와의 협력관계 강화추세
- 푸틴은 러-미 관계의 냉각 내지 적대관계가 오히려 러시아 국내에서 미국 영향력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 나아가 민주주의와 서방과의 관계 개선을 주장하는 반대파를 미국의 앞잡이로 몰아붙일 수 있다고 판단

나. 현재와 같은 냉각관계는 러시아에게 득보다는 실

- 양국의 대결 국면은 불균형(asymmetrical)을 특징으로 하는데 러시아에 대한 위협부담이 더 큼
- 유가 하락, 자본 유출, 경제 제재는 푸틴의 선택폭을 제한할 것. 또한 저유가 기조가 \$60 수준에 머문다면 2015년도 경제성장률은 -4.6%, 재정적자는 GDP 대비 3% 이상 기록할 것으로 전망¹⁹⁾
- 러시아 지도부가 현 정권의 지지도를 높이기 위해 민족주의와 위기의식을 이용할 경우 주변 국가들과의 갈등은 지속될 것. 이는 결국 푸틴 정권의 부담이 될 것임

다. 러-미 간 공동이해 분야에 대한 협력모색

- 공동이해 분야
 - 알카에다 및 탈레반을 포함한 지하드 위협

푸틴은 러-미 관계의 냉각 내지 적대관계가 오히려 러시아 국내에서 미국 영향력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 나아가 민주주의와 서방과의 관계개선을 주장하는 반대파를 미국의 앞잡이로 몰아붙일 수 있다고 판단

**미국은 러시아의
민주화, 시장경제화,
서구화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러시아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받아야함...
러시아 정부는
국민들이 어려움을
맞을 때마다
“애국심을 조장하여”
그 모든 것을
미국의 탓으로 돌릴
기회로 활용할 것임**

-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대처
- 이란의 핵 보유 방지
- 한반도 긴장 완화
- 러-미 간 핵무기 통제와 세계적 핵 비확산
- 유럽 및 세계 평화 및 번영
- 러시아의 세계시장 통합

- 미국은 러시아의 민주화, 시장경제화, 서구화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러시아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받아야 함. 왜냐하면 미국이 러시아에 대해 징벌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면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국민들이 어려움을 맞을 때마다 “애국심을 조장하여” 그 모든 것을 미국의 탓으로 돌릴 기회로 활용할 것임

주석

- 1) Dmitri Trenin, Testimony: State Duma Committee on International Affairs (Dec. 8, 2014).
- 2) 2013년 5월, 미 상원은 시리아반군 무기지원안을 가결하였으며 6월에는 오바마 미대통령이 이를 승인함. 그러나 공식적으로 무기를 공급하지는 않음.
- 3) 이홍섭,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의 배경 및 전망,” 『안보현안분석』(2014.3.31).
- 4) 양국관계의 특징에 대해서는 서동주, 「러시아 푸틴정부의 대미관계: 특징, 전망, 정책적 함의」, 『JPI정책포럼』(No.2014-12/16).
- 5) http://archive.kremlin.ru/eng/speeches/2007/02/10/0138_type82912type82914type82917type84779_118123.shtml (검색일: 2015.1.18).
- 6) 푸틴 대통령의 2014.3.18. 연설, <http://eng.kremlin.ru/news/6889> (검색일: 2015.1.18).
- 7) 푸틴 대통령의 발다이 2013.9.19. 연설, <http://eng.kremlin.ru/news/6007> (검색일: 2015.1.18).
- 8) 여기서 푸틴은 서방을 ‘유럽’과 ‘미국’으로 구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음.
- 9) “Россия и меняющийся мир,” *Московские новости* (2012.2.27).
- 10) 1980년대 이후 석유 초과 공급이 다섯 번 있었는데 초과 공급량은 2% 안팎이었지만 유가는 27~69%까지 떨어짐. 『조선일보』 2015년 1월 3~4일. B7.
- 11) NBC Nightly News (2015.1.6), 한편 미국세일오일 생산비는 배럴당 \$35~75 수준(평균 \$60).
- 12) 2014년 12월 26일 푸틴 대통령 새로운 군사독트린에 서명.

- 13) <http://csis.org/print/50154> (검색일: 2015.1.20).
- 14) bcm(billion cubic meters)=10억m³
- 15) EU 회원국인 불가리아를 경유하여 남중부유럽(크로아티아, 헝가리, 슬로베니아 등)에 가스를 공급하는 노선.
- 16) <http://www.platts.com/latest-news/natural-gas/moscow/russian-draft-energy-strategy-sees-23-of-exports-26649363> (검색일: 2015.1.25).
- 17) Theodore P. Gerber, "Beyond Putin? Nationalism and Xenophobia in Russian Public Opinion," *The Washington Quarterly* 37-3 (Fall 2014).
- 18) Mark N. Katz, "Can Russian-US Relations Improve?" *Strategic Studies Quarterly* (Summer 2014).
- 19) 제성훈, "푸틴의 연례교서에 담긴 2015년 러시아의 주요과제," *Russia-Eurasia Focus* (2015.1.5).

❖ 저자 약력

■ 이홍섭

現 국방대학교 안보대학원 교수로 한국의국어대학교에서 정치학박사학위를 취득함. 주요 경력으로는 러시아과학원 극동연구소 교환연구원,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연구교수,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방문학자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국방대 안보문제 연구소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을 맡고 있음. 연구분야는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의 정치와 안보문제 등이며, 주요 논저로는 『21세기 국가안보의 도전과 과제』(2011, 공저), 『미·일·중·러의 군사전략』(2008, 공저), "21C 러시아 군 개혁의 배경과 방향: 네트워크 중심전(NCW) 대비"(2013), "러시아 정치체제의 권위주의화: '안보위협'의 효과를 중심으로"(2011) 등 다수.

기획 및 감수: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편집: 고정선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원)

강윤미 (제주평화연구원 연구보조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697-858)

전화: 064) 735-6500 팩스: 064) 738-6552

E-mail: policyforum@jpi.or.kr <http://www.jpi.or.kr>

『JPI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2005-9760